

요일로 13.6%였다.

6. 계절별 이용율은 봄이 33.8%로 가장 높아 봄에 아동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7. 증상별 이용율은 소화기질환이 3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외상, 두통 순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본 연구자는 국민학교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1.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된 양호교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므로 완전한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양호교사를 증원함이 바람직하다.

2. 봄에 가장 많은 이용율을 보인 것으로 보아 겨울방학동안에 아동건강관리를 위한 학부모들의 계몽교육이 실시되어야겠다.

3. 소화기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아동들의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민학교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1983.

정영숙

A. 결론

본 연구는 1982년부터 신개발된 국민학교 교과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와 1983년부터 신개발된 4학년에서 6학년용 교과서를 대상으로 전 교과목중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보건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내용상에 나타난 시정 및 보충점 지적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과목별 보건관계 포함정도는 체육과목이 71면으로 제일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외 실과, 자연, 바른생활과목등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② 보건교육의 학습경험은 설명이 29.32%로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주로 교사중심의 학습경험이 많았다.

③ 영역별로 보면 예방관리측면이 62면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환경위생은 55면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학년별로 분류하여 보면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6학년과정에서는 급감소현상을 보였다.

④ 내용이나 용어의 시정 또는 보충점은 전 과목에 걸쳐 22건이 발생되었다. 내용의 착오 12편, 용어의 시정 6건, 설명부족 3건, 삭제 1건이었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교과서 개정작업의 전후에 보건교육 교과과정평가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학교 담임교사용 보건교육지침의 별도제작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교육은 단일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고 각 과목에서 분산되어 전 학업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보건교육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학교 보건교육 개발위원회 조직체가 필요하다.

네째, 중요한 보건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양호교사가 직접 수업을 하든가 양호교사에게 자문을 하여 충실한 보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중학교 남학생들의 건강관리 실천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1984.

기 경 숙

본 연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실천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지식과의 상관도를 검증하며, 그 이외의 변수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일 남자 중학교 3학년 학생 총818명 중 5개반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응답하게 했는데 이 중에서 불완전한 응답을 한 54명을 제외한 총296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저자가 문헌을 기초로하여 작성하고 이를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1명과 간호학 교수 9명이 내용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20명의 학생에게 사전검사를 하며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1983년 9월 22일~26일까지 시험형식으로,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서 조사시간을 할애받기 쉬운 자율학습 시간을 택하여, 본인이 직접 학급에 들어가 담당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차이로 인한 주위환경 및 피로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전시간을 택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취지 및 답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기록하게 한 후 즉석에서 회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가구주의 교육정도, 동거가족수, 가구주의 직업, 가족의 총월수입, 생활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가구주의 교육정도는 고졸이상인 57.4%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수는 평균 4.07명이고, 대상자들이 보고한 생활정도에서 「상」이 21.7%, 「중」이 61.0%, 「하」가 17.3%로 나타났다.